

【연구논문】

## 데이빗 매릿(David Mamet)의 에세이에 나타난 유태성과 다문화주의적 가치관 고찰

황 규 철

(탐라대학교 국제학부)

### I

유태계 미국인은 미국 전체 인구의 약 2.5퍼센트 미만의 비율을 차지하므로 소수 민족에 속한다. 그들은 아프리카계, 토착 미국인, 아시아계, 라틴계와 마찬가지로 소수 인종 및 민족에 속하긴 하지만 외형적으로 백인과 유사하기 때문에 미국 사회에 쉽게 동화될 수 있다. 이런 이유 때문에 유태계 미국인들은 다른 소수 인종 및 민족보다 미국 사회에 빨리 적응하여 출세와 성공을 구가할 수 있었다. 하지만 그들이 미국 사회에 빠른 속도로 동화될수록 정체성에 대한 위기의식은 그만큼 고조된다. 이런 점에서 유태계 미국인의 정체성의 위기 의식은 그들이 미국 사회에 쉽게 적응할 수 있는 피부색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존재한다는 역설이 성립한다. 그들이 단기간 내에 미국 사회에 성공적으로 진출할 수 있었던 요인 가운데 하나는 이방인과의 이족혼(intermarriage)이다. 에드워드 쉐피로(Edward Shapiro)는 유태계가 직면한 문제가 유태계의 일상 생활에 더 이상 커다란 영향력을 미치지 못하는 그들만의 종교와 문화적 전통을 후세에 전달해야 하는 어려움이라고 진단하고, 그들이 이스라엘을 소중히 여긴다든지 혹은 자선 활동에 전념하는 것만으로는 민족적 정체성을 존속시킬 수 없다는 점을 지적한다(170). 그러므로 유태계 미국인이 당면한 최대 과제는 유태인으로서의 정체성과 미국인으

로서의 정체성간의 미묘한 평형을 확립하는 것이다.

그런데 매릿의 에세이와 몇몇 작품에는 유태계 미국인이 해결해야 할 난제인 유태성과 미국성(Americanness)의 양립 가능성에 대한 진지한 탐색의 흔적이 역력하다. 매릿이 다문화주의적 시각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은 그의 극작품이나 영화 대본보다 오히려 에세이에 잘 나타나 있다. 매릿은 자신의 에세이를 통해서 같은 유태계 미국인에게는 유태성을 확립할 것을 촉구하는 동시에 여타 소수 인종 및 민족 집단의 차이와 다양성을 이해하고 존중하는 태도를 보인다. 즉 매릿의 관심사는 유태계 미국인들이 민족적 정체성을 확립하는데 멈추지 않고 토착 미국인과 아프리카계를 포함한 소수 인종 및 민족 집단, 여성, 게이(gay)에 대해서도 이해와 공감을 나타낸다.<sup>1)</sup> 하지만 매릿은 아프리카계의 일부 지도자인 제시 잭슨(Jesse Jackson)이나 루이 파라칸(Louis Farrakhan)의 반유태주의적 발언(SF 233-234; MT 205)과 와스프(WASP)가 소수 인종 및 민족에게 가하는 정치적, 종교적 횡포에 대해서 강도높은 비판을 가한다. 미국 사회를 구성하는 각 인종 및 민족의 독자성과 다양성을 존중하지만 단일성에 대한 열망을 실현하기 위해 혹은 다른 인종 및 민족에 대한 근거없는 편견과 증오에서 여타 인종 및 민족을 억압하고 착취하는 시도에 대해서는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는 매릿이 다문화주의적 가치관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명백하다. 여기에서 조심할 사항은 매릿의 에세이를 정독하지 않고 그의 일부 극작품과 영화 대본을 읽을 경우가 작품들이 다문화주의에 대한 매릿의 회의적인 시각을 반영한 것이라고 오판할 수 있다는 점이다. 이따로 매릿 작품을 다문화주의와 관련

1) 매릿은 미국 여성이 이류 시민으로 대접받고 있다고 진단한 다음 여성도 기타 다른 억압받는 집단과 마찬가지로 그들의 권익을 쟁취하는 능동성을 보여야 한다고 강조한다(SF 243). 매릿은 자신의 경험에 비추어 볼 때 여성이 남성보다 더 훌륭하고, 더 강하며, 더 정직하다고 말함으로써 여성에 대해서 호의적인 입장을 보인다(242). 또한 그가 미국을 위한다는 미명하에 블랙 힐즈(Black Hills)에서 발굴한 토착 미국인 조상의 유골을 스미소니언 박물관에 보관하고, 루이 암스트롱(Louis Armstrong)을 아프리카계가 아닌 세계 친절 대사(Goodwill Ambassador to the World)라는 명칭을 통해서만 지지를 보내는 현실을 개탄하는 대목(MT 140)에는 토착 미국인과 아프리카계 미국인에 대한 애정과 와스프(WASP)에 대한 비판이 동시에 나타나 있다.

시켜 논할 때에는 그의 에세이를 평가의 척도로 삼는 것이 바람직하다. 본고는 매릿의 에세이 중에서 미국 사회에 대한 매릿의 시각을 먼저 살펴본 다음, 미국 사회에서의 유태계의 위상에 대한 매릿의 진단을 고찰해 봄으로써 그가 바람직한 다문화주의적 가치관을 지향하고 있음 밝히고자 한다.

## II

매릿은 미국인이 기본을 지키는 소위 최우선 원칙(First Principles)의 옹호를 미국적인 것과 거리가 먼 것으로 간주해 왔다고 비판한다. 그의 주장에 따르면 미국인이 숭양하는 헌법에 명시된 선택의 자유가 실제로는 여성, 소수 인종 및 민족 집단, 동성애자, 빈자, 정부의 시책을 반대하는 집단에 적용되지 않으며, 표현의 자유, 종교의 자유, 성적 성향(性向)의 자유는 이를 실행에 옮기기 전까지만 용인된다(WR 24-25). 또한 매릿은 미국이 과거에는 세계의 평화를 유지하기 위한 중재자로서의 역할을 톡톡히 했지만 1980년대에는 전쟁도발자로 변모했다고 강도높게 비판한다(SF 293). 미국이 자유를 사랑하는 국가에서 타국에게 자유를 부여하기도 하고 박탈하기도하는 국가로 전락했다는 것이다. 게다가 그는 1886년에 신에 대한 겸손을 보여준 미국의 이민 개방 정책이 현재 정치적 도구로 이용되는데 대해서 신랄한 비판을 가한다(SF 294). 이와 같이 매릿이 지적하는 미국 사회의 문제점은 미국의 독립선언서와 헌법을 통해 명시된 미국의 이념과 현실과의 적잖은 괴리에서 비롯된다. 매릿이 다양하고 풍요로운 미국 사회 건설을 위한 개방적인 이민 정책이나 사회 각 분야에서 준수되는 최우선원칙을 지지하기 때문에 그가 단일성보다 다양성을 강조하는 다문화주의적 가치를 견지하고 있다는 것은 분명하다. 이러므로 미국 사회에 대한 매릿의 통렬한 비판은 바람직한 유형의 다문화주의가 미국 사회에 정착되기 위해 시정되어야 할 문

제점을 제기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유태계 미국인에 대한 매밋의 논점은 동화로 인한 정체성의 위기와 반유태주의로 요약된다. 먼저 「유대인 가정의 장식」(“The Decoration of Jewish Houses”)이란 에세이에서 매밋이 지적하는 유태계 미국인이 직면한 가장 커다란 문제점은 자기 민족에 대한 자긍심의 결여이다(SF 233). 그에 따르면 유태계 미국인은 자기 민족을 제외한 인종의 사회적 정의의 실현을 위해 몸바쳐온 민족이다. 그들은 아프리카계의 시민권 획득에 가장 적극적인 동반자였다. 하지만 유태계는 자기 문화의 우수성은 고사하고 그 존재에 대한 믿음조차 가지고 있지 않다. 이런 이유에서 매밋은 유태계 미국인이 이류시민으로 남기를 자청해왔다고 비판한다(SF 233). 유태계가 자신의 사회적 평등을 부르짖는 일에는 적극적이지만, 오히려 억압받는 기타 다른 인종 및 민족의 권리 획득에는 지원을 아끼지 않는 모순은 자기 민족에 대한 애정의 부족에서 비롯된 것이다. 그는 유태계 미국인이 민족적 자부심이 강하지 못하기 때문에 아프리카계 인권운동가인 제시 잭슨의 반유태주의적 발언에 침묵을 지키고, 미국 대통령 후보로 유태계가 출마한다든지 유대인을 상기시키는 슈바르츠(Schwartz)나 비른바움(Birnbaum)과 같은 이름이 주요 고속도로의 명칭으로 사용될 가능성을 아예 배제해 버린다고 비판한다(SF 233-234).

매밋이 시급히 시정해야 할 과제로 제시하는 유태계 미국인의 자긍심의 결여는 자신의 민족적 정체성을 숨긴 채 성공을 거둔 유태계에 대해서 같은 동포 유태계가 내면적으로 회열을 느끼는 양태로도 나타난다(SF 235). 예컨대 자신의 정체성을 버린 대가로 성공을 거둔 유태계 영화배우에 대해서 유태계 관객이 자랑스러움을 느끼는 것은 심리적 동화(psychic assimilation)가 어느 정도 이루어졌음을 입증하는 것이므로 이러한 태도를 지양해야 한다는 것이 그의 입장이다(SF 235). 유태계의 자긍심의 결여는 유태계 가정이 일반 미국인 가정과 대동소이하게 변화되어 가는 모습으로도 나타난다. 유태계 미국인의 자기비하적 태도가 그들의 가정에 유대인임을 상징하는 물건을 구비해 놓는데 소극적으로

만든다는 것이다. 유대계 미국인의 자부심 결여가 유대적 정체성 확립의 장애물이라고 진단한 매릿은 자기 민족이 “아름답고 훌륭하며, 유구하고 위풍당당한 역사가 그들의 문학과 핏속에 살아 숨쉬고 있다”(SF 236)고 말한다. 미국에 거주하는 유대계의 바람직하지 못한 인식의 전환을 촉구하는 매릿은 이스라엘 국민에 대해서도 강한 유대감을 표명한다.

매릿이 지적하는 동화와 유대적 정체성의 위기는 비단 최근에 불거진 문제가 아니라 계몽주의(Haskalah)의 영향을 받아 유럽의 유대인 거주지역인 게토(Ghetto)의 벽이 허물어지면서 시작된 것이다(Solomon 9). 이때부터 유대인들은 자신의 민족적 정체성을 포기하고 주위의 지배문화에 동화되어 살 것인가 아니면 민족적 정체성을 고수한 채 유대교의 전통과 의식을 준수하며 살 것인가의 사이에서 끊임없이 갈등해왔다. 이와 마찬가지로 유대계 미국인도 동화주의의 유혹과 유대적 정체성의 고수 사이에서 갈등을 겪고 있다. 유대계 미국인이 민족적 정체성을 고수하는 일이 쉽지 않은 이유 가운데 하나는 유대적 정체성이 계몽주의 이전처럼 주어지는 것이 아닌 선택되는 양상으로 변모했기 때문이다. 유대적 정체성이 선택하는 것으로 바뀌면서 이에 대한 규정도 그만큼 다양하다(Zweigenhaft and Domhoff 5-7). 전통적인 유대교의 율법에 따르면 유대인 어머니에게서 태어난 자녀나 유대교로 개종한 사람은 모두 유대인이다. 유대적 정체성에 대한 두 번째 정의는 당사자의 확신으로 결정되는 것인데, 예를 들면 비록 아버지가 유대인이고 어머니가 이방인일 경우 그 자녀가 자신을 유대인이라고 생각하면 그는 유대인이 되는 것이다. 유대적 정체성에 대한 세 번째 정의는 유대인 회당이나 유대인 클럽과 같은 유대인 기관에 소속된 회원은 모두 유대인이라는 것이다. 유대적 정체성에 대한 다양한 정의는 전통적 방식에 의한 유대성의 보전이 그만큼 어려워졌다는 사실을 반증한다.

그런데 동화주의의 유혹 속에서도 민족적 정체성을 유지하는 일은 비단 유대계 미국인만의 문제가 아닌 미국의 모든 소수 인종 및 민족의 문제이다. 미국의 소수 인종 및 민족도 각기 독자적인 문화를 고수하며 동

죽간의 결혼을 장려하긴 하지만 미국 사회에 거주하는 한 동화의 영향력에서 완전히 벗어날 수 없다. 소수 인종 및 민족에게 어느 정도의 동화 과정은 필연적이며 앞으로 동화의 정도가 더욱 심화될 것이 분명하다. 이런 점에서 유대계 미국인의 딜레마가 단순히 소수 인종 및 민족의 딜레마의 일부분이라고 치부할 수 있지만, 유대계 미국인에게는 나치 치하에서의 끔찍한 대학살이라는 역사적 사실과 그들 특유의 민족종교인 유대교가 민족적 정체성 확립과 유지에 크게 이바지해왔으므로 이들의 딜레마가 소수 인종 및 민족의 딜레마를 대표한다고 보는 것이 보다 타당하다.

매밋의 주장에 의하면 유대인에 대한 증오(Jew-hating)는 유대인의 존재로 야기된 것도 아니고, 유대인에 대한 오해에서 발생한 것도 아니며, 유대인을 증오할 필요성에서 시작된 것도 아니다(MT 206). 그는 반유대주의가 발생한 근본적인 원인을 보호받지 못하는 표적에 대한 인간의 광기와 분노에서 찾는다(MT 206-207). 매밋에 의하면 기독교 국가인 유럽이 아무런 논리적 근거 없이 그들에게 고통을 가져다준 장본인으로 유대인을 지목했고 그들이 자행한 유대인 대학살이 무위로 끝나자 오히려 유대인에 대한 분노가 비등했다.

매밋은 반유대주의가 이방인에게서 비롯된 것임을 인정하지만 유대인 스스로 반유대주의를 조장할 가능성에 대해서도 간과하지 않는다. 그는 유대계 미국인들의 언행이 자칫 반유대주의에 일조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음을 경고하고, 그 예로 반유대주의적 색채가 농후한 발언에 대해 마음속으로만 비판하고 겉으로는 반응을 나타내지 않는 경우와, 친구가 각테일 파티에서 “너희 유대인들이 지난 수 천년동안 박해를 받아왔다면 너희들이 그럴만한 행동을 한 것이 아닌가?”라고 비난할 때 그저 한숨만 내쉬는 경우와, 유대계가 그들과 무관한 사회적 대의를 옹호하는 경우를 언급한다(SF 236). 매밋은 유대계의 민족적 자긍심의 결여가 반유대주의에 일조할 가능성이 농후하다는 점을 지적한다. 그렇다면 반유대주의를 해결할만한 대처방안은 없는 것인가? 이에 대한 매밋

의 대답은 부정적이다.

우리에게는 반유대주의에 대한 치유책이 없다. 치유책을 찾으려고 노력하는 것은 어리석음을 뿐만 아니라 자기파괴적인 결과를 초래한다. 반유대주의 앞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행동은 자기방어일 뿐이다. 반유대주의에 대해서 설명하고, 추론하며, 특히 관용의 태도를 보이는 것은 불행한 결과를 초래할 뿐이다.

We cannot cure it[anti-Semitism], and it is not only folly but self-destructive to try. We can only defend ourselves against it. Explanation, reason, and, importantly, *tolerance* in response to anti-Semitism are disastrous for us. (MT 206)

매릿의 주장에 의하면 인간의 광기와 분노에서 비롯된 반유대주의 앞에서는 이성과 논리가 통용되지 않는다. 마치 한 여성을 겁탈하려는 악한 앞에서 페미니즘의 논리가 자기방어의 수단이 될 수 없듯이 반유대주의의 표적이 된 유대인은 무력하게 당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 매릿의 생각이다(MT 207).

그런데 매릿은 반유대주의적 발언에 대해서 침묵해서도 안되고 논리적인 언어도 무용하다고 주장하면서도 이런 상황에서 취할 수 있는 자기방어적 태도가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 지에 대해서 언급하지 않는다. 반유대주의에 대한 의견 개진에서 매릿이 범한 두 번째 오류는 반유대주의와 '유대인에 대한 증오'를 동일한 개념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점이다. 반유대주의는 지구에 존재하는 모든 유대인의 절멸을 목표로 만들어진 특정한 개념이므로 유대인에 대한 증오라는 일반적인 개념과는 차원을 달리한다. 반유대주의에 대한 의견 개진에서 매릿이 보인 세 번째 오류는 유대인이 대학살의 희생자가 된 것이 우연의 결과라고 주장한 데 있다. 매릿과 대조적인 견해를 피력하는 존 바이스(John Weiss)의 주장에 의하면 반유대주의가 독일에서 발흥한 이유는 반유대

교주의(Anti-Judaism)와 인종차별주의가 유럽의 어느 나라보다 강했기 때문이다(ix). 나치 독일은 중세 유럽에 이미 형성된 반유대주의를 그들의 정치적 입지를 강화하는 수단으로 이용하는데, 이들의 지상 목표는 혈통이 우수하지 못한 유대인, 슬라브족, 짐시를 절멸시키는 것이다(Ropers and Pence 21). 특히 아리아인들의 혈통의 우수성을 알리는데 걸림돌이 되는 유대인을 색출하기 위해 나치가 사용한 방법은 악명 높다. 나치는 유대인의 여부를 가리는 기준으로 부모나 조부모가 한 사람이라도 유대인이면 그 자녀를 유대인으로 간주하였다(Zweigenhaft and Domhoff 6). 또한 다른 종교로 개종한 유대인도 유대인이라고 규정지은 반면 유대교로 개종한 아리아인은 아리아인으로 간주하는 모순을 범하기도 하였다. 이렇듯이 나치는 인종적인 관점에서 유대인의 여부를 가늠하는 기준을 마련했지만 그 기준이 비합리적이다. 그러므로 반유대주의가 독일의 특정한 역사적 맥락의 필연적 결과라는 존 바이스의 주장은 반유대주의가 우연의 산물이라는 매밋의 주장보다 설득력이 있다.

반유대주의는 유대인을 절멸시키려는 목적을 정당화하기 위해 나치가 날조한 개념이긴 했지만 반유대주의는 오늘날 미국에서도 여전히 잔존한다. 현 미국 사회에서 반유대주의를 부르짖는 집단을 몇 가지 예를 들면 예수 그리스도 기독교인의 교회(the Church of Jesus Christ Christian), KKK(Ku Klux Klan), 미국 나치당(American Nazi Party), 아리아인 국가들(Aryan Nations)이 있는데 이 집단의 공통점은 백인 지상주의를 목표로 하고 있으며 유대인에 대한 반감을 노골적으로 드러낸다는 것이다(Ropers and Pence 23). 이들의 백인우월주의는 인종적인 면에서 백인의 우월성과 종교적인 면에서 백인의 종교인 기독교의 우월성을 과시한다. 반유대주의는 유대인이란 인종 집단에 대한 다른 인종 집단의 반감을 체계화한 것이므로 일종의 인종차별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매밋의 에세이에는 미국 사회에서 유대계가 겪는 내면적 갈등, 세대간의 갈등뿐만 아니라 유대계와 이방인(특히 기독교인)간의 갈등도 언급되어 있다. 매밋에 의하면 유대인은 낯선 땅에서 서로에게 위

안을 주는 코드, 언어, 농담, 태도를 공유하는 존재이다(SF 233). 매릿은 「평범한 갈색 봉투」(“A Plain Brown Wrapper”)란 에세이에서 자신을 비롯한 개혁 유대교도들의 내면적 갈등을 묘사하고 있다. 1950년대 그가 개혁 유대교를 신봉하는 부모와 함께 다녔던 시나이 회당(Sinai Temple)에서의 종교적 체험은 그의 민족적 정체성에 대한 수치심을 야기했다.<sup>2)</sup> 어린 매릿의 눈에 개혁 유대교를 신봉하는 시나이 회당은 전통적인 유대교를 비방하고 기독교의 우월성을 암암리에 조장함으로써 기독교에로의 개종을 유도하는 것처럼 보였다. 그곳은 람비(Rabbi)라는 호칭 대신 박사(Doctor)를 사용했고, 수양의 뿔로 만든 나팔(Shofar) 대신 트럼펫을 사용했으며, 유대계 학교(Shul)대신 주일 학교(Sunday School)를 운영함으로써 유대교의 전통을 비방하는 태도를 보였다(SF 238). 이 회당에 출입하는 유대계는 자신이 인종적으로 유대인임을 인정했지만 유대교보다 기독교가 우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종교적으로는 유니테리언이었다(SF 238). 그래서 그들은 성대한 의식을 벌이는 날을 두려움과 수치심을 갖고 찬양했는데 이 두려움과 수치심은 그들의 유산을 버린 것 때문이 아니라 이를 충분히 버리지 못한 것 때문에 야기된 것이다(SF 239). 일요일마다 시나이 회당에 모인 유대계 신도들이 찬양한 내용은 유대교로부터의 도피이자 신과 조상으로부터의 분리였던 것이다(SF 239).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릿은 자신의 민족적 정체성에 대한 자부심과 신의 실체에 대한 점증하는 의식을 가지고 있다고 토로

2) 개혁 유대교는 계몽주의를 대표하는 유대인 사상가 모세스 멘델스존(Moses Mendelssohn)의 영향을 받아 독일에서 시작되었다. 이 개혁 유대교는 19세기 중엽 독일 유대인들이 미국으로 이주하면서 함께 유입되었고, 이들 중에서 좀더 전통성을 지향하는 무리들이 보수 유대교를 확립하였으며, 이 보수 유대교에서 유대교를 종교가 아닌 하나의 문명으로 파악하는 유대교 재건주의(Reconstructionism)란 새로운 종파가 형성되었다(Cohn-Sherbok, *Modern* 15). 개혁 유대교의 커다란 특징은 의식(ritual)적인 면보다 윤리적인 면을 강조하고, 단일성 속에서 다양성을 추구하며, 유대인 공동체 속에서의 민주화를 꾀한다는 것이다(Borowitz xix-xxv). 예를 들면 개혁 유대교는 부모 중 어느 한쪽이 유대인이면 그 자식도 유대인으로 인정해준다든지 혹은 평등의 원칙을 수용하여 유대인 여성도 람비나 기도문 낭독자가 될 수 있도록 배려한다(Cohn-Sherbok, *Modern* 15-16). 하지만 최근에는 유대인의 정체성 확립의 필요성을 절감한 때문인지 전통적인 예배와 의식을 복원하려는 움직임이 보인다.

함으로써(SF 240) 그가 어린 시절에 시나이 회당에서 받은 영혼의 상처가 어느 정도 치유되었음을 고백한다.

매밋의 가족을 중심으로 빚어지는 유태인 세대간의 갈등은 「기억」(“Memory”)이란 제목의 에세이에 잘 나타나 있다. 그는 어린 시절 아버지가 자신의 힘겨웠던 과거의 경험을 꺼낸 것에 대해 속으로 분개했음을 토로한다(MT 194). 어린 매밋의 분노의 원인은 아버지의 힘겨웠던 과거의 이야기 자체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그 이야기에 공감할 것을 요구한 아버지의 태도에 있었던 것이다. 그래서인지 그는 개개인의 경험이 저장된 기억을 서로에게 전달하려는 노력이 부질없는 행위임을 지적한다(MT 194). 이처럼 대화를 통해서 서로의 기억 속에 내장된 체험을 공유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면, 발화자가 자신의 체험이 담긴 이야기를 극의 형식을 빌어 공연할 경우 청취자인 관객이 이에 공감하는 것이 과연 가능할까? 이에 대한 Mamet의 대답은 부정적인데, 그 이유는 청취자인 관객이 공연 자체를 오락적 가치와 결부시켜 받아들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한다(MT 195). 매밋의 주장에 의하면 직접 체험한 당사자가 이야기 혹은 극의 형식을 빌어 형상화한다고 하더라도 상대방이 그와 똑같은 느낌이 들도록 만드는 것이 불가능하다.

또한 매밋은 2차 세계 대전동안에 나치에 의해 약 600 만 명의 유태인들이 무참히 살육된 사건인 대학살(Holocaust)을 경험한 세대와 그렇지 못한 세대간에 갈등이 형성될 수 있음을 지적한다. 매밋의 주장에 따르면 인류의 역사상 가장 치욕적인 사건 중의 하나인 대학살을 몸소 겪지 않은 사람들은 생존자들의 끔찍하고 생생한 증언을 마치 예술작품을 대하듯 한다(MT 195). 아울러 대학살의 생존자가 피로 얼룩진 이 사건을 설명, 보복하려 하거나 이에 대한 보상을 요구하려는 시도는 무의미한 것이라고 역설한다(MT 206). 매밋은 청소년기에 부모에게 대학살과 관련시켜 “왜 그런 일이 일어나게 내버려두셨나요?”라든지 혹은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모르셨어요?”라는 힐난조의 질문을 던진 적이 있다고 말한다. 그는 나중에야 부모가 대답대신 침묵으로 일관한 것

이 억울한 죽임을 당한 수많은 유대인 앞에서 살아있는 자가 취할 수 있는 최선의 선택이었음을 깨닫는다(MT 207). 이 대목에는 청소년기에 자기 증오에 사로잡힌 매릿이 부모 앞에서 반유태주의에 일조하는 발언을 서슴지 않은 것에 대한 자성이 담겨 있다. 매릿의 주장대로 대학살을 경험한 자와 경험하지 못한 자 사이에 메울 수 없는 간극이 존재한다면 대학살에 관한 이야기나 이를 다룬 문학 작품은 존재 가치를 상실한다. 어떤 경험을 통해서만 느낄 수 있는 감정을 다른 방법을 통해서 느낄 수가 없다는 그의 경험주의적 사고는 인간의 연륜과 상상력을 통한 공감의 가능성을 무시한 발언일 뿐만 아니라 대학살을 다룬 모든 문학 작품에 대한 모독이 아닐 수 없다. 만일 그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대학살을 다룬 자신의 이야기책 『유월절』(Passover; 1995)와 『성년식』(Bar Mitzvah; 1999)은 단지 오락적 가치만을 지닌 작품에 불과하다는 논리가 성립한다.

매릿은 「소수 인종의 권리: 기독교 국가의 유태계 자녀들」(“Minority Rights: Jewish Kids in a Christian Country”)이란 에세이에서 미국 사회에서 주류를 형성하는 기독교와 비주류에 속하는 유태교간에는 갈등이 불가피하며 두 종교간의 화해가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힌다. 그의 주장에 의하면 기독교적 사고와 문화가 미국 사회 전반에 침윤되어 있기 때문에 유태계는 종교적으로나 문화적으로 홀대받거나 무시당하기 일쑤다. 매릿은 그 대표적인 예로 법원건물 앞에 세워진 크리스마스 트리가 크리스마스가 아닌 계절을 나타내는 상징물일 뿐이라는 기독교인의 변명을 제시한다. 그는 이 기독교인의 말이 비기독교인의 입장에서 볼 때 무례한 태도로 존경을 강요하는 것으로 들릴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한다(MT 201).

그는 바로 위에서 언급한 에세이에서 유태계를 포함한 다른 비기독교인의 자녀들이 기독교 교리와 문화를 암암리에 강요하는 학교에서 마음의 상처를 받는 경우를 지적한다. 매릿에 의하면 학교 안에서 프로테스탄트들이 기도하는 관행을 유지하려고 벌이는 투쟁은 하나의 종교와 인

종이 존재했고 모든 시민이 동종의 가치를 공유했던 상상의 시간 속으로 되돌아가려는 욕망과 다를 바가 없다(MT 199-200). 매밋은 유대계 학생이 어떤 의식에서 면제받을 수 있다는 발언과 그 학생이 배타적 잠재력을 지닌 활동을 하기 전에 이로 인해 야기될 수 있는 문제와 관련된 질문을 그에게 해도 좋다는 식의 발언은 동기가 선하고 이를 제시하는 방법이 정중하다해도 인종차별적인 발언으로 인식될 여지가 있다(MT 200)고 지적한다. 기독교인의 수가 압도적으로 우세한 사회에서 성장하는 유대계의 자녀는 끊임없이 자신의 역할, 지위, 책임에 대해 평가를 내리고, 주류문화에 속하고자 하는 욕망과 자신의 정신적 유산, 종교적 의식, 문화적 정체성 사이에서 갈등하는 경우를 빈번하게 겪는다(MT 200). 매밋이 학교 안에서 기독교가 유대교를 포함한 기타 다른 종교를 무시하고 억압하는 또 다른 구체적인 예로 마틴 루터 킹 추모일(Martin Luther King's Day)에 비기독교 학생에게 기독교적 성향이 짙은 노래를 부르도록 강요하는 사례를 지적한다(MT 201). 마틴 루터 킹 추모일은 원래 킹 목사를 추모하고 아프리카계에게 경의를 표하는 날이므로, 유대인 자녀에게 굳이 유대인의 살육을 연상시키는 십자가란 단어가 자주 등장하는 「야곱의 사다리」('Jacob's Ladder')란 노래를 부르도록 강요할 수는 없다는 것이다.

매밋은 유대교와 기독교를 이분법적으로 파악하여 두 종교 사이에는 화해나 대화가 불가능하다고 생각한다. 기독교와 유대교간에는 공통점보다 차이점이 더욱 많이 발견되므로 그의 주장은 어느 정도 일리가 있다. 기독교와 유대교간에 나타나는 차이점을 몇 가지만 열거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기독교가 믿음을 우선하는 반면 유대교는 신이 내린 명령(mitzvot)을 행동으로 옮기는 것을 우선한다. 둘째 기독교가 교회에서 올리는 의식을 일차적으로 생각하는 반면 유대교는 가정에서 올리는 의식을 일차적으로 생각한다. 셋째 기독교가 특정 민족과 무관한 종교인 반면 유대교는 유대 민족과 유리될 수 없는 종교이다(Danzger 4-6). 이런 맥락에서 이 두 종교가 반목한 원인을 써. 슈네벨트(C. Schoeneveld)

목사는 기독교와 유대교가 상호 배타적 입장을 고수해왔기 때문이라고 주장한다(Cohn-Sherbok, *Issues* 91에서 재인용). 만일 유대교만이 옳다고 주장하면 기독교 신도는 성인(聖人)에 불과한 예수를 구세주로 신봉했다는 이유로 우상숭배자가 되고, 기독교만이 옳다고 주장하면 유대교 신봉자는 예수를 신의 아들로 인식하지 못한 불경죄를 저지른 셈이 된다. 이렇듯이 기독교와 유대교가 서로를 배척하는 입장을 고수할 경우 두 종교간의 화해는 불가능하다.

하지만 매릿의 주장대로 두 종교간의 화해나 대화의 가능성이 전무한 것인지에 대해서는 이론의 여지가 있다. 두 종교는 같은 유일신을 믿고, 천지창조의 이야기를 공유하며, 아브라함(Abraham)을 아버지로 사라(Sarah)를 어머니로 섬긴다는 공통점을 지닌다(Neusner and Chilton x). 게다가 요하네스 카디널 빌레반츠(Johannes Cardinal Willebrands)는 신약의 저자들이 예수와 그의 사명을 유대교의 전통에서 파악하고 있고, 예수가 자신이 유대인임을 강조하고 있으며, 예수의 포교활동의 일차적인 영역이 이스라엘이고, 신약의 묵시록적인 이미지들이 유대교적 전통에 속한다는 점을 들어 신약에도 친유대주의적 내용이 많이 발견된다고 주장한다(Con-Sherbok, *Issues* 84에서 재인용). 최근에 두 종교가 상호배타적 입장에서 벗어나 화해하려는 움직임을 보이는 것은 두 종교의 뿌리가 같기 때문에 가능하다.

### III

미국에서 소수 민족에 속하는 유대계 미국인을 바라보는 시각은 유대계 미국인의 밝은 미래를 예견하는 변형주의자(transformationalist)의 시각과 이와 대조적인 동화주의자(assimilationist)의 시각으로 대별된다. 먼저 변형주의자들은 미국의 유대계 집단이 역사적으로 이산의 아픔을 겪은 집단 중에서 수적으로 가장 우세하고, 가장 부유하며, 최고의

교육을 받은 가장 성공적인 집단이라고 주장한다(Linzer, et al. xi). 이들은 미국의 유대계 사회가 유대적 경험을 누릴 수 있는 방식을 변형시켜 가는 도정에 있으며 현대화의 도전에 가장 성공적으로 대처하는 집단이라고 평가한다(xii). 이와는 반대로 동화주의자들은 미국의 유대계 사회에서의 동화, 문맹, 인구 감소, 이족혼(異族婚)이 전례 없는 비율로 급증하고 있고 반유대주의가 미국에서도 여전히 만연하고 있다는 사실에 우려를 표명하면서 미국 사회가 유대계의 민족적 정체성에 파괴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주장한다(Linzer, et al. xi). 이와 관련하여 유대계 미국인을 바라보는 매릿의 시각은 동화주의자들과 대단히 유사하다. 매릿은 자신의 에세이를 통해서 유대계 미국인이 유대적 정체성을 계승, 발전시키려는 노력을 등한시한다고 지적한다.

매릿이 자신의 에세이를 통해서 제시되는 유대계의 갈등이나 딜레마의 원인은 유대계에 국한시킬 경우 동화로 인한 민족적 정체성의 위기이고, 유대계와 주류 문화의 주체인 앵글로 색슨계와의 관계에 초점을 둘 경우 공공건물이나 학교 내에서 빚어지는 종교적 갈등이다. 그리고 그는 반유대주의를 유대계 내부와 외부에 모두 해당되는 문제점으로 인식한다. 이처럼 매릿이 자신의 에세이에서 유대계와 관련된 문제점을 지적하는 의도는 다양한 인종 및 민족의 집합체인 미국에서 각 집단의 고유한 문화가 상호존중의 기반에서 유지되어야 함을 강조하기 위한 것으로 해석된다. 결국 매릿이 그의 에세이에서 개진하려는 논지의 핵심은 미국을 구성하는 각 인종 및 민족 집단의 정체성을 계승, 발전시키되 이들의 문화가 다른 인종 및 민족의 문화를 억압하는 사례가 발생해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매릿은 자신의 에세이를 통해 소수 인종 및 민족을 대표하는 유대계 미국인의 딜레마를 심도있게 다루고 있을 뿐만 아니라 각 인종 및 민족의 차이와 다양성을 존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다문화주의적 가치관을 피력하고 있다.

## 참 고 문 헌

- Borowitz, Eugene B. *Reform Judaism Today*. New Jersey: Behrman House, Inc., 1983.
- Cohn-Sherbok, Dan. *Issues in Contemporary Judaism*. Hampshire and London: Macmillan, 1991.
- \_\_\_\_\_. *Modern Judaism*. Hampshire and London: Macmillan Press, LTD., 1996.
- Danzger, M. Herbert. *Returning to Tradition: The Contemporary Revival of Orthodox Judaism*. New Haven & London: Yale Univ. Press, 1989.
- Linzer, Norman. "The Changing Nature of Jewish Identity." *A Portrait of the American Jewish Community*. Eds. Norman Linzer, David J. Schnall and Jerome A. Chanes. Westport and London: Praeger, 1998. 1-12.
- Mamet, David. *Bar Mitzvah*. Boston: Little, Brown and Company, 1999.
- \_\_\_\_\_. *Make-believe Town: Essays and Remembrances*. Boston and New York: Little, Brown and Company, 1996.
- \_\_\_\_\_. *Passover*. New York: St. Martin's Press, 1995.
- \_\_\_\_\_. *Some Freaks*. In *A Whore's Profession: Notes and Essays*. London: Faber and Faber, 1994.
- \_\_\_\_\_. *Writing in Restaurants*. New York: Penguin Books, 1986.
- Neusner, Jacob, and Bruce Chilton. *Jewish-Christian Debates: God, Kingdom, Messiah*. Minneapolis: Fortress Press, 1998.
- Ropers, Richard H., and Dan J. Pence. *American Prejudice: With*

- Liberty and Justice for Some*. New York: Plenum Press, 1995.
- Shapiro, Edward. "Jewish-Americans." *Multiculturalism in the United States: A Comparative Guide to Acculturation and Ethnicity*. Eds. John D. Buenker and Lorman A. Ratner. Westport: Greenwood Press, 1992. 149-172.
- Solomon, Norman. *Judaism: A Very Short Introduction*. Oxford & New York: Oxford Univ. Press, 1996.
- Weiss, John. *Ideology of Death: Why the Holocaust Happened in Germany*. Chicago: Ivan R. Dee Inc., 1996.
- Zweigenhaft, Richard L., and G. William Domhoff. *Jews in the Protestant Establishment*. New York: Praeger Publishers, 1982.

〈Abstract〉

## Jewishness and Multiculturalism in David Mamet's Essays

Kyu-Cheol Hwang

David Mamet, one of the major contemporary American playwrights is an American Jew whose parents were the children of the Ashkenazic immigrants. However, no Judaism was practiced in his home. His Jewish consciousness was reawakened when he went to his niece's bat mitzvah. His concerns about the difficulty of remaining as American Jews and some types of conflicts of the Jews and the Gentiles in America are shown in his essays.

According to his essays, the Jewish-Americans' conflicts in their communities are mainly caused by the crisis of their ethnic identity. And the type of conflicts of Jewish-Americans and Anglo-Americans is the religious one in schools and public buildings. Besides, it is Anti-Semitism that Mamet recognizes as a common chronic symptom in and out of the Jewish-American communities. The reason why Mamet gives a full account of some problems concerning Jewish-Americans is to ask for giving recognition to the difference and diversity of each racial and ethnic group in America. So, it can be inferred that each group should inherit and develop their own ethnicity but should not oppress and exploit all other groups who differ in race and ethnicity.

Conclusively, Mamet probes into the Jewish-American dilemma and finds it desirable for one racial and ethnic group to understand

and respect the difference and diversity of all other groups in his essays. For this reason, Mamet can be viewed as a multiculturalist emphasizing diversity over unity.